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명자

5월 2일

1과

본문말씀 예레미야 1:1-10

의술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8)

주 제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아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 친구 관계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복잡한 문제 등으로 두려워하는 십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받은 사명과 말씀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말씀 돌보기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1장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에(1절)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듯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연결고리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나요?(2절)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삼십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A.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무엇이였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예레미야는 이에 어떻게 반응하나요?(5~6절)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A.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대변하기에는 언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연결고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없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예레미야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7~8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A.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며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할 말을 주신다는 것’과 둘째는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며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4.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9절)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미시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A. 하나님은 자신의 종에게 소명을 주실 때 자주 그들의 입을 만지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지자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사명’을 주시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5.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집과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우리도 또한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고 있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6. 스스로를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성경을 읽고 강하게 와닿는 말씀 적어두고 실천하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모를 써서 책상에 붙여놓고 늘 기억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부족한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아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시며 그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음을 확인시키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

족함은 알았지만,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당장 죄에서 로그아웃!!

5월 11일
2과

본문말씀 예레미야 2:26-37
외울말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됴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2:29)
주 제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도 반복해서 짓다 보면 버릇이 돼 더 큰 잘못을 저 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전의 두려움과 떨림은 온데간데없고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죄의 익숙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 봅시다.

 **말씀 돋보기**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 다. 1-13절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 14-25절은 ‘이스라엘의 항무함의 원인’, 26-37절은 ‘이스라엘 의 죄악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죄의 익숙함’, 참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죄로부터 돌 이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 1.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6~27절)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 하소서 하리라
A.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 하고 돌을 보고 어머니라 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을 찾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또한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다음 질문을 통해 알아 봅시다.

- 2.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자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29절)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 징계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30절)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됴이나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30절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A.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하자 여호와께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다 한통속”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징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이스라엘의 가증함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시나요?(33~35절)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A. 이스라엘은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자들에게 손님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한수 가르칠 정도로 ‘음란의 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억울한 사람의 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린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4.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또한 이들이 형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6절)

36절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A. 이스라엘은 바른 ‘길’을 떠난 후에 기회만 생기면 ‘이 길 저길’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망의 대상인 앗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전전공공하지만 결국 이 두 나라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버림’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5. 이스라엘은 징계와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도 혹시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찾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길 저 길'을 찾아다녀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어야만 살 수 있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영상, 자극적인 영상은 시청하지 않기, 하나님 만날 때는 폰 전원 꺼두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저 또한 위기가 찾아올 때만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죄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로그아웃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위기가 찾아올 때만 잠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책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본문말씀 예레미야 4:1-14

외울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예레미야 4:1)

주 제 죄에서 빠져나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5월 16일
3과

마음의 문을 열며

불쑥 튀어나오는 비속어,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다른 친구를 보며 느끼는 시기심과 질투. 십대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돌보기 본문인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세상의 파괴와 절망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 뒤에는 아픔과 상처, 주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결고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큰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1절) 또한 이스라엘이 돌아온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2절)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A.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삶을 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야 합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3~4절)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A.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며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우상이 무성한 마음의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옥토를 갈아 그곳이 씨앗을 파종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인가요?(9절) 예레미야는 유다를 치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의 파괴력을 무엇에 비유하나요?(11, 13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1절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혈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3절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A. 이방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혼란과 당혹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치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의 파괴력을 '뜨거운 바람'과 '회오리 바람',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연결고리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선포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4.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A.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거기에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가고 있나요? 학교와 학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한 번 죄에서 빠져나오면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연결고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죄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하기,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습관 가지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한 번 죄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실과 정의, 공의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군대가 그들을 뜨거운 바람과 구름, 회오리바람, 독수리보다 빠른 말처럼 덮치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헤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고,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회복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Who am I?

5월 23일

본문말씀 예레미야 7:1-13

외울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예레미야 7:3)

주 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과

마음의 문을 열며

‘Who am I?’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십대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체성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십대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중요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예레미야의 흐름에서 1-6장은 서론 역할을 했다면, 7장은 본론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을 세 차례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결고리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도 또한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2절)

2절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비하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A.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선포를 하라고 하십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3절)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A.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나요?(7절)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A.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다 백성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고리 역시 회복의 키워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4.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실로를 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2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A.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성의 운명은 실로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이 여러 면에서 옛날에 실로 사람들을 덮었던 심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머지않아 실로와 같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과 행실을 경건하고 의롭게 바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연결고리 유다 백성은 자신의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실과 경건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다음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지는 않나요? 학원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연결고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결단해봅시다.

6.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답게 살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고 적어봅시다.

예시 ‘날 자녀라 하시네’ 찬양 부르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저를 자녀이자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좇으며 가증하게 행동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실로에 임했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 정체성을 흔들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자랑#하나님을앓

본문말씀

예레미야 9:7-24

의율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4)

주 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5월 31일

5과

마음의 문을 열며

‘용돈 자랑, 스마트폰 자랑, 성적 자랑’ 등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자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자랑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예레미야의 9장은 두 개의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러티브(13-16절)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 내러티브(25-26절)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환란을 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혹시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자랑을 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7~8절)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A.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환란의 용광로’에 넣으시며 연단하시는 이유는 이 정제 과정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순수성을 회복하고 빛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연단의 시간 가운데 있는 한 가지를 봤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예레미야가 본 광야 목장은 어떤 모습인가요?(10~11절)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A. 예레미야는 한때는 사람들과 생기로 북적거리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땅이 사람은 물론이고 새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변한 것을 봤습니다.

연결고리 광야 목장은 정말 황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멸망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13~14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A.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유다 백성에게 멸망이 임한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24절)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A.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때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힘써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배경, 나의 노력,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연결고리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6.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하나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판 삼아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나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알리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서는 불순물과 부정함으로 가득한 유다 백성을 향해 마지막 수단으로 '녹이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로 연장을 달구는 것처럼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셔서라도 그들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힘쓰고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 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